

대한민국, 세계가 평가하다

- GE, IMD, 세계은행, 골드만 삭스, 무디스 등 -



대통령실

“

우리 국력이 지금처럼 강성하고 세계 속에서 위상이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이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극 기여해왔습니다.
작년 11월에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해 세계적 차원에서
공생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고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3월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우리 역할을 국제안보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핵 테러 위협에서 더욱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정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에 대응해서 인류를 위한 희망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2012.1.2, 신년 국정연설

”

CONTENTS

목 차

I	GE가 우리나라를 혁신 주도국가로 평가했습니다	06
II	IMD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0
III	골드만 삭스는 “한국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16
IV	무디스와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17
V	후진타오 주석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장을 벤치마킹하라”고 했습니다	19
VI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21

글로벌 기업과 세계기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쉽 없는 달음질을 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에 발생한 2008년 세계 금융·경제위기, 2010년 유럽 재정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잘 극복한 도전과 응전의 역사였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더딘 회복세를 보였으나 우리나라는 신속한 재정·금융조치 등으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빨리 극복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G20 정상회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핵안보정상회의 유치,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및 개발원조총회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FTA 확대, 한류 확산, 무역 1조 달러 달성 등으로 대외적 국가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국격은 대외적으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세계적 기업인 GE는 2012년 1월 발표한 'GE 혁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세계 5번째 혁신 주도 국가로 평가하였습니다. 22개국 주요 기업 고위 임원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세계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향상된 국가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23위)에 비해 1단계 상승한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3년 연속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1997년 IMD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더욱이 얼마나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지를 의미하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2011년 8위를 차지하여 전년보다 8단계, 2008년에 비하여 15단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2011년 성장환경지수(GES)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72점을 받아 전체 183개국 중 4위를 차지하였고,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Jim O’Neil) 회장은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Viewpoints, 2011.3.24)에서 주요 신흥국들에게 “한국을 배우라(Copy Korea)”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2012년 4월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등급은 A1 유지)하였고, 2011년 11월에는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등급은 A+ 유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 대외건전성,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감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그리스 경제 문제로 촉발된 유럽 위기, 이란 원유사태, 실물 경시의 둔화, 높은 청년실업률 등 국내외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간의 위기극복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 잘 극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선진 일류국가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져갈 것입니다.

2012년 5월 30일
국제경제보좌관 이 중 화

I GE가 우리나라를 혁신 주도국가로 평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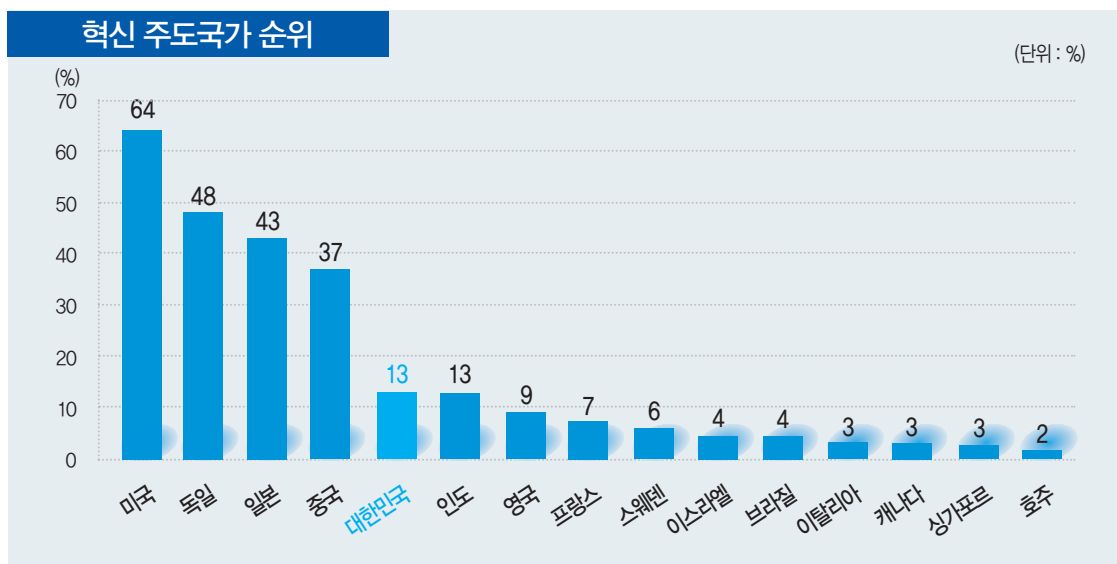
1 GE의 혁신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혁신 순위

■ 2012년 1월 GE(General Electric Company)가 발표한 ‘GE 혁신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5번째**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평가됨

* GE Global Innovation Barometer(Global Research Report, January 2012)

** 1위 미국, 2위 독일, 3위 일본, 4위 중국

- 22개국 주요 기업 고위 임원 28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 중 92%는 ‘혁신’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요소라고 대답
-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가 5번째 혁신 주도국가로 선정된 것은 세계 기업인들로부터 우리나라가 높은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





GE의 'Global Innovation Barometer 2012' 개요

* GE(General Electric Company) :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서, 1892년 설립되어 혁신적인 제품과 경영기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으며 2005년 '포춘(Fortune)' 지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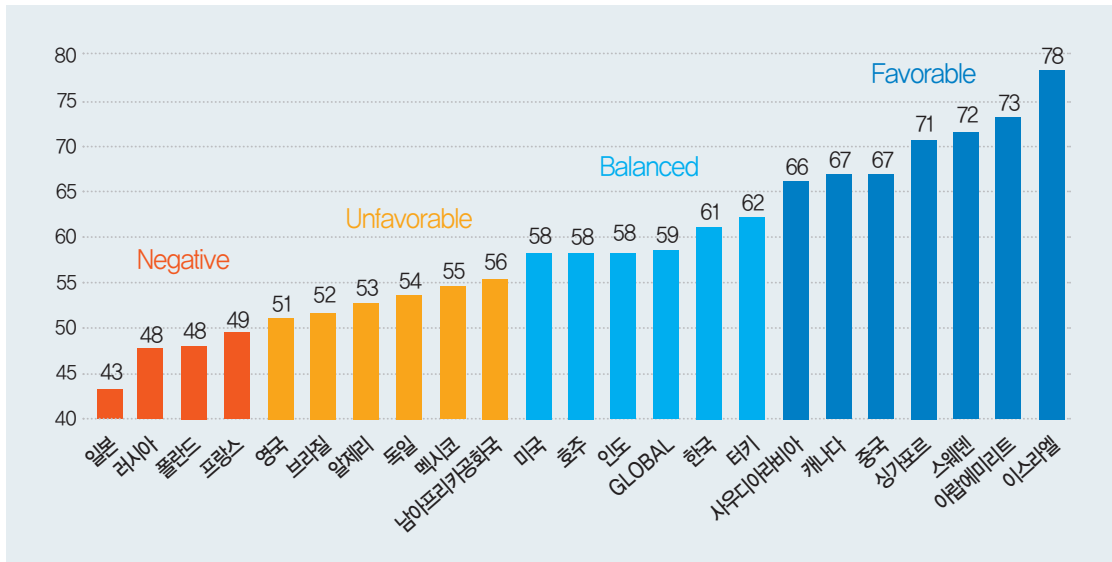
- 조사 목적 : 국가별 혁신동력과 저해요소를 파악하고 혁신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조사 기간 : 2011.10.15~11.15
- 조사 대상 : 22개 국가의 주요 기업 고위 임원 2800명
(대상 기업의 평균 고용자 수는 1500명 규모)

지역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아프리카
대상 국가 및 샘플 크기	미국 300	한국 100	독일 100	이스라엘 100
	브라질 200	중국 200	스웨덴 100	터키 100
	캐나다 100	인도 200	영국 100	사우디 100
	멕시코 100	싱가포르 100	프랑스 100	아랍에미리트 100
		호주 100	폴란드 100	알제리 100
		일본 100	러시아 200	남아공 100
계	700	800	700	600

- 조사 방법 : 전화 설문 방식(1인당 평균 16분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GE의 위탁으로 독립된 조사 컨설팅 기관인 스트래티지원*(StrategyOne)이 실시
* 1999년에 설립되어 뉴욕, 파리, 런던 등 전 세계 14개 사무소 개소

2 혁신 환경 만족도는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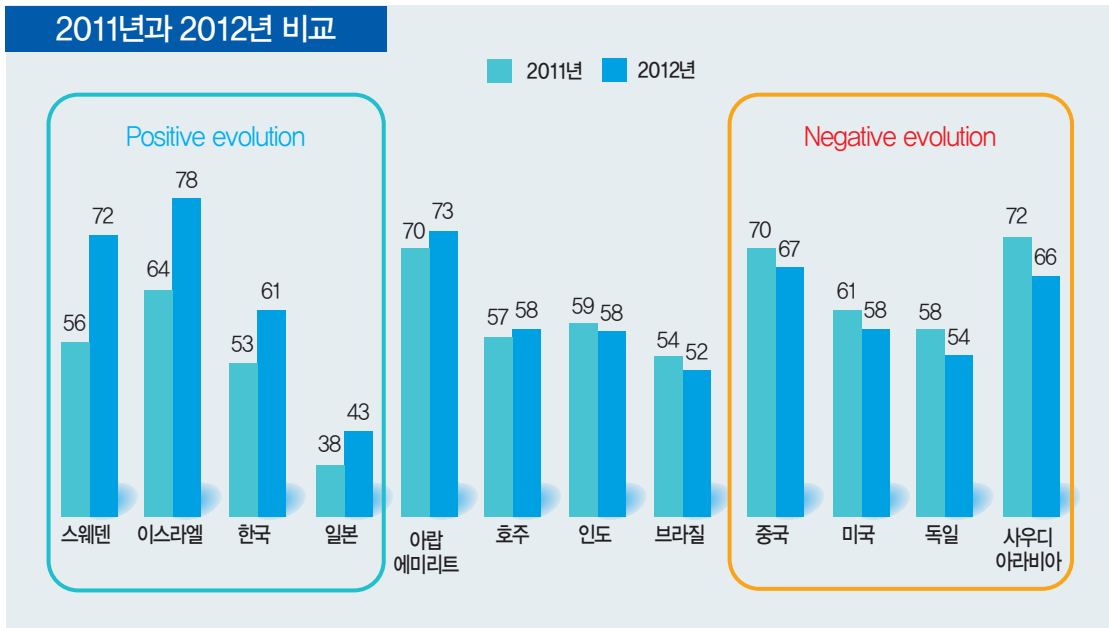
- ‘GE 혁신보고서’의 자국에 대한 ‘혁신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체 평균 59점보다 높은 61점을 기록하여 9번째로 만족도가 높은 국가로 평가됨



- ‘혁신 환경 만족도 조사’는 각 국가의 설문조사 대상들이 자국의 혁신 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00점 만점의 지수(100 point index)로 표현한 것임
 - ‘GE 혁신보고서’는 혁신 환경을 아래와 같이 13개의 구성요소로 구분
 - ① 정부 지원
 - ② 정부 지원 효율성
 - ③ 무역 규정
 - ④ 지식재산권 보호
 - ⑤ 민간 협력의 효과성
 - ⑥ 민간 투자자 지원
 - ⑦ 미래 혁신 준비도
 - ⑧ 혁신에 대한 국민 가치
 - ⑨ 혁신에 대한 국민 호감도
 - ⑩ 위험에 대한 사회 수용력
 - ⑪ 기업에 대한 국민 지지도
 - ⑫ 산학협력 용이성
 - ⑬ 혁신 제품의 시장화 속도

■ 2012년 우리나라의 혁신 환경 만족도 61점은 2011년 혁신 환경 만족도 53점보다 8점 상승한 결과임

● GE '혁신 환경 만족도'의 개선은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의 혁신 환경이 지난해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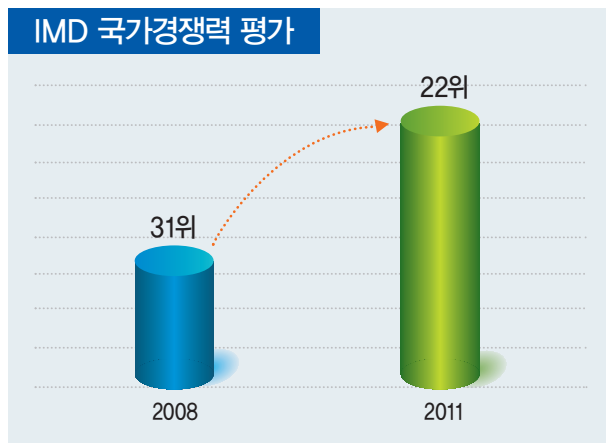
II

IMD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 'GE 혁신보고서'에서 나타났듯이 현 정부는 그동안 규제 개혁,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1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

- IMD*의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총 59개국)에서 우리나라는 전년(23위)에 비해 1단계 상승한 22위 기록
 - * 국제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 2008년 이후 3년 연속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상승하였으며 1997년 IMD 조사 이후 최고 수준 기록
 - * IMD 보도자료에서도 카타르, 터키와 함께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한 국가로 언급
 - * (2008년) 31위→(2009년) 27위→(2010년) 23위→(2011년) 22위



■ 2010년과 비교 시, 4대 평가 부문별(4부문)로는 정부 효율성(2010년 26위→2011년 22위)이 개선된 반면 경제 성과(2010년 21위→2011년 25위)는 다소 하락

● 경제 성과 부문의 하락은 세부 평가 부문 중 물가 및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데 기인

■ 2008년 이후, 정부 효율성(2008년 37위→2011년 22위)과 기업 효율성(2008년 36위→2011년 26위)이 균형 있게 상승하면서 전체 순위 상승을 주도

●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을 통한 전반적인 경제 성과 개선(2008년 47위→2011년 25위)도 순위 상승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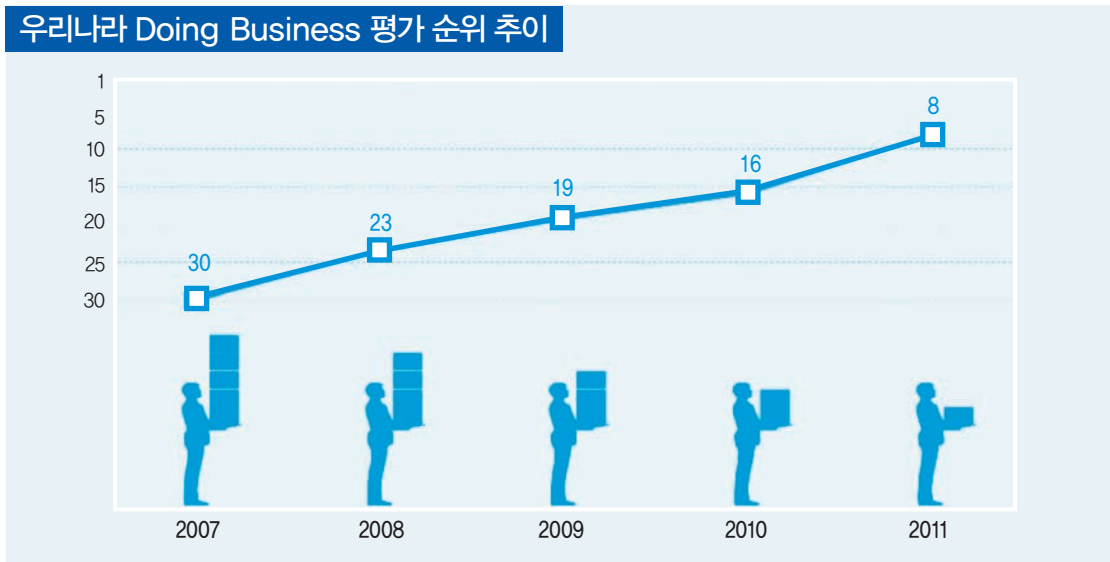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변동 추이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1. 경제 성과	38	36	49	47	45	21	25
2. 정부 효율성	28	41	31	37	36	26	22
3. 기업 효율성	27	38	38	36	29	27	26
4. 인프라 구축	20	22	19	21	20	20	20

2 세계은행의 기업 환경 평가

-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 환경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1년 8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8단계, 2008년에 비하여 15단계가 상승한 결과

* Doing Business 2012, ‘Making a Difference for Entrepreneurs’



- OECD 국가 중 6위, G20 회원국 중 3위를 기록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1위), 홍콩(2위)에 이어 3위 기록
 - * 주요 OECD 국가 순위 : 미국 4위, 영국 7위, 한국 8위, 캐나다 13위, 호주 15위, 독일 19위, 프랑스 29위
 - * 주요 동아시아 국가 순위 : 싱가포르 1위, 홍콩 2위, 한국 8위, 태국 17위, 말레이시아 18위, 일본 20위, 대만 25위, 중국 91위
- 우리나라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영국, 마케도니아, 멕시코와 함께 사례로 수록
- 2010년과 비교 시, 창업 부문(2010년 60위→2011년 24위), 세금 납부 부문(2010년 49위→2011년 38위) 등 제도 개선 성과가 순위 상승에 기여

- 온라인 원스톱 창업이 가능한 재택 창업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절차 축소(8단계 →5단계) 및 창업시간 절감(14일 →7일)

- 지방 세목 통합, 4대보험 통합 징수를 통한 연간 납부 횟수 축소(14회→12회) 및 연간 소요시간 단축(250시간→225시간) 성과

■ 2008년 이후, 창업, 세금 납부, 국제교역 부문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지속적인 전체 순위 상승에 기여

우리나라의 부문별 순위 변동 추이

평가 항목	2007	2008	2009	2010	2011
① 창업 (Starting a Business)	107	126	53	60	24
② 건축 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22	23	23	22	26
③ 전기 연결 (Getting Electricity)	-	-	-	-	11
④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62	67	71	74	71
⑤ 자금 조달 (Getting Credit)	25	12	15	15	8
⑥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66	70	73	74	79
⑦ 세금 납부 (Paying Taxes)	43	43	49	49	38
⑧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13	12	8	8	4
⑨ 채권 회수 (Enforcing Contracts)	9	8	5	5	2
⑩ 퇴출 (Resolving Insolvency)	11	12	12	13	13

3 WEF의 세계경쟁력 평가

■ WEF*의 2011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142개국 중 24위**를 기록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 (2008년) 13위→(2009년) 19위→(2010년) 22위→(2011년) 24위

■ 국가별로는 스위스가 2년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9위(전년도 6위), 홍콩이 11위(전년도 11위), 중국이 26위(전년도 27위)를 차지

2011 WEF 국가경쟁력 순위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	미국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1(1)	2(3)	3(2)	4(7)	5(4)	6(5)	7(8)	8(9)
일본	영국	홍콩	캐나다	대만	카타르	벨기에	노르웨이
9(6)	10(12)	11(11)	12(10)	13(13)	14(17)	15(19)	16(14)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한국
17(21)	18(15)	19(18)	20(16)	21(26)	22(24)	23(20)	24(22)

* ()안은 2010년도 순위

■ 우리나라는 2008년과 비교 시, 제도적 요인(2008년 28위→2011년 65위), 노동시장 효율성(2008년 41위→2011년 76위) 및 금융시장 성숙도(2008년 37위→2011년 80위) 등의 하락으로 전체 순위 하락

■ 2010년과 비교 시에는 2011년 3대 평가 부문별 순위가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는 하락

● 기본요인 부문(2010년 23위→2011년 19위)은 상승, 효율성 증진(2010년 22위→2011년 22위) 및 기업 혁신·성숙도 부문(2010년 18위→2011년 18위)은 전년과 동일 순위

우리나라의 부문별(3대 부문, 12개 세부 부문) 순위 변화

연도	전체 순위	기본요인(23위→19위)				효율성 증진(22위→22위)						기업 혁신·성숙도(18위→18위)	
		제도적 요인	인프라	거시 경제	보건 및 초등교육	고등교육 및 훈련	상품 시장 효율성	노동 시장 효율성	금융 시장 성숙도	기술 수용 적극성	시장 규모	기업 활동 성숙도	기업 혁신
2008	13	28	15	4	26	12	22	41	37	13	13	16	9
2009	19	53	17	11	27	16	36	84	58	15	12	21	11
2010	22	62	18	6	21	15	38	78	83	19	11	24	12
2011	24	65	9	6	15	17	37	76	80	18	11	25	14

참고

IMD 등 다른 국가경쟁력 평가지표와 달리 WEF의 평가지표 순위가 하락한 것은 주관적 설문 평가*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임

* 전체 111개 평가지표 중 79개 설문조사, 32개 통계자료 활용 (우리나라의 경우, WEF의 국내 파트너 기관인 KAIST와 KDI가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KAIST는 KAIST 최고 경영자 과정 재학생 및 동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 KDI는 한국신용평가 등록 기업 중 무작위 선정한 기업인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실시)



골드만 삭스는 “한국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 골드만삭스 성장환경지수(GES), 국가신용등급, 국가브랜드지수 등의 상승세도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세계의 시각이 바뀌고 있음을 잘 보여줌
- 우리나라는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의 2011년 성장환경지수(GES)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7.72점을 받아 전체 183개국 중 4위* 차지
* 1위 싱가포르(8.43점), 2위 노르웨이(8.07점), 3위 홍콩(7.88점)

성장환경지수(Growth Environment Scores)

◎ 골드만삭스가 전반적인 성장 환경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매년 180여 개국을 대상으로 평가

전체 5개 부문, 13개 요소로 구성

- 거시경제 안전성 : 인플레이션, 재정 적자, 외채
- 거시경제 여건 : 투자, 개방성
- 기술 역량 : PC · 전화 · 인터넷 보급률
- 인적 자원 : 교육, 기대수명
- 정치적 여건 : 정치 안정성, 법치주의, 청렴도

-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짐 오닐(Jim O'Neil) 회장은 투자자에게 보내는 편지(Viewpoints, 2011.3.24)에서 성장환경지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주요 신흥국들에게 “한국을 배우라(Copy Korea)”고 조언
-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용어의 창시자인 짐 오닐 회장은 첫째, 한국을 더 이상 신흥국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둘째, BRICs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한국을 ‘롤모델이자 목표’로 삼아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권고

IV

무디스와 피치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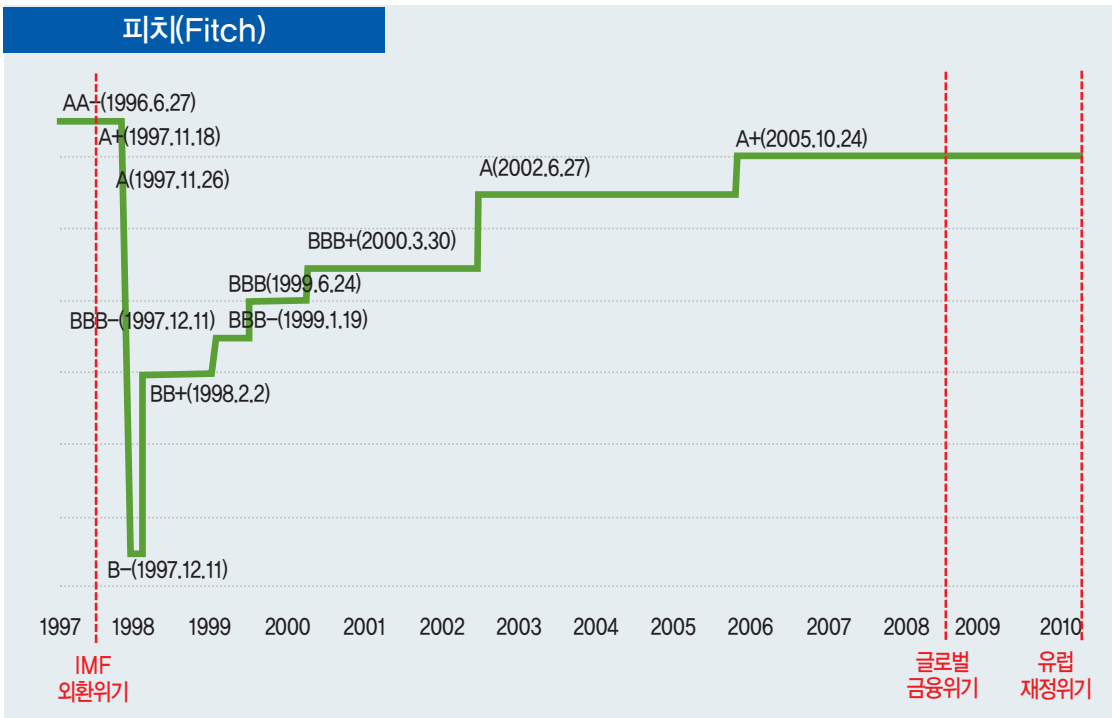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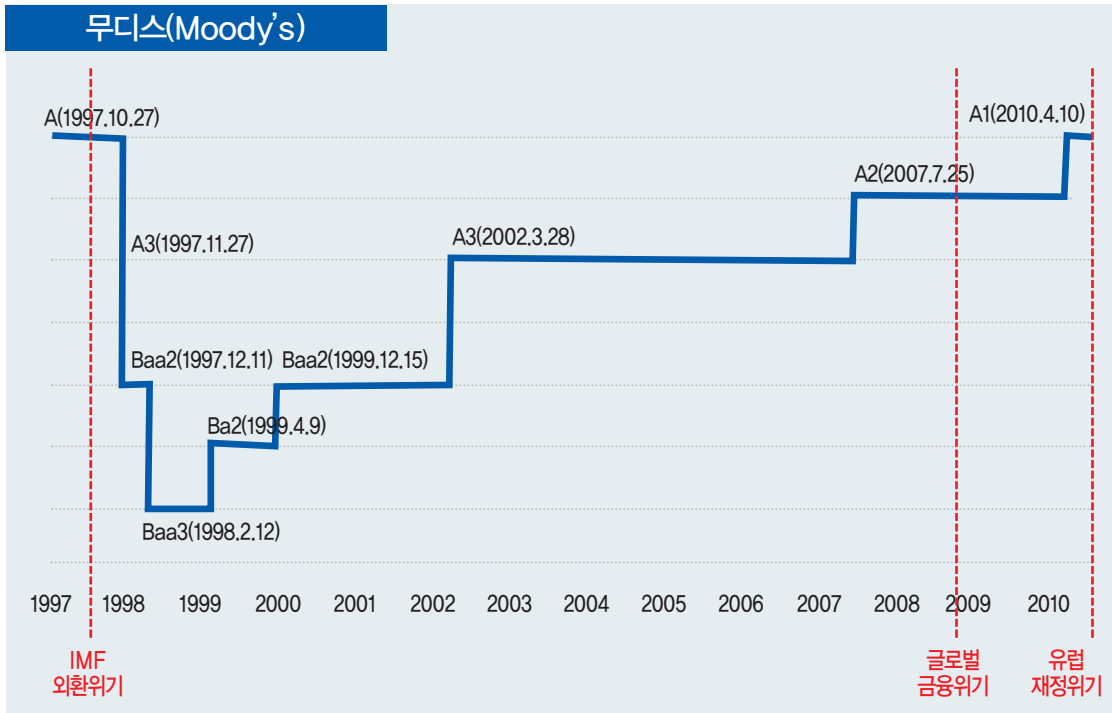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 전망

- 미국의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는 지난 4월 2일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로 상향 조정(등급은 A1 유지)
 - 이번 상향 조정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대외 건전성, 은행 부문의 대외 취약성 감소,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성장 전망 등에 따른 것임
- 무디스는 2010년 4월에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2(Stable)에서 A1(Stable)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2011년 11월에는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등급은 A+ 유지)
-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및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의 위기 대응능력 및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결과

※ 각 국가별 신용등급 변동현황(Moody's 기준)

	2008.9 등급	2012.5.22 등급	
미국·영국·프랑스	Aaa(S)	Aaa(N)	전망 강등
일본	Aaa(S)	Aa3(S)	등급 3단계 강등
이탈리아	Aa2(S)	A3(N)	등급 4단계 및 전망 강등
스페인	Aaa(S)	A3(N)	등급 6단계 및 전망 강등
한국	A2(S)	A1(P)	등급 1단계 및 전망 상승

2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





후진타오 주석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장을 벤치마킹하라”고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 호평 이어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폐막한 3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의 정상회의장에 중국 관리 30명이 들어왔다. 메모할 노트를 든 이들은 “회의장 디자인에 대해 알고 싶다”며 회의장 곳곳을 살피고 다녔다. 캠코더로 회의장 내부를 찍고 테이블 재질이 무엇인지, 자리 배치 간격이 몇 미터인지 등을 꼬치꼬치 캐물었다. 줄자로 직접 길이를 재어보기도 했다.

이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의를 전부 벤치마킹하라. 레드존(정상들의 활동공간) 출입 비표가 없는 사람들도 모두 레드존에 들어가서 행사장 조성 디자인을 배우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였다. 후 주석은 당시 행사장의 분위기와 인테리어에 크게 만족해하며 수행원들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4월 3일 “핵안보정상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이번 회의에 참석한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회의 준비 과정이나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정상회의 뒷얘기들을 전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측은 “정상들 의자의 등받이 뒷면에 나라와 기구의 명칭을 일일이 새긴 것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인터폴이 새겨진 의자를 구입하고 싶으니 구입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로널드 노블 인터폴 사무총장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정상들의 비표에만 따로 붙어 있는 금색의 작은 클립을 보고 “정말 예쁘다. 평생 간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자는 “정상들에게만 제공됐던 러펠핀의 제작업체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뉴질랜드 측은 “첨단 기술을 잘 활용한 회의 시스템이 인상적”이라며 이번 행사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문의했다. 중국 측 스태프는 “후 주석이 한우 스테이크와 봄채소로 구성된 첫날 만찬을 좋아했다”며 메뉴판을 인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상들은 양자 정상회담과 외부 일정에도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 아니 여사는 3월 28일 국민 만찬 공연에서 남편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Save Our World)를 어린이합창단이 부르는 것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시했다. 잉락 치나왓 태국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국 드라마 ‘풀하우스’를 재미있게 봤고 2PM 멤버인 닉쿤(태국 출신 가수)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이 “태국의 무에타이 영화인 ‘옹박’을 봤다”고 화답하자 반가워했다고 한다.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일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한 뒤 “정상 58명이 한자리에 모인 국제회의에서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진행된 의전 노하우를 모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핵안보정상회의 백서를 발간하고 각종 정상회의 의전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 동아일보 2012.4.4



우리나라 국가브랜드 순위도 상승했습니다

■ 국가브랜드위원회(PCNB)와 삼성경제연구소(SERI)가 공동 개발한 국가 브랜드지수 모델(SERI-PCNB NBDO*)의 2011년도 조사 결과, 총 50개국 중 한국의 실체는 15위로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이미지는 19위로 전년과 동일

* NBDO(Nation Brand Dual Octagon) 모델은 125개 통계 데이터를 반영한 '실체'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미지'로 나뉘며 조사 항목은 경제·기업, 과학·기술, 인프라, 정책·제도, 전통문화·자연, 현대문화, 국민, 유명인 등 8가지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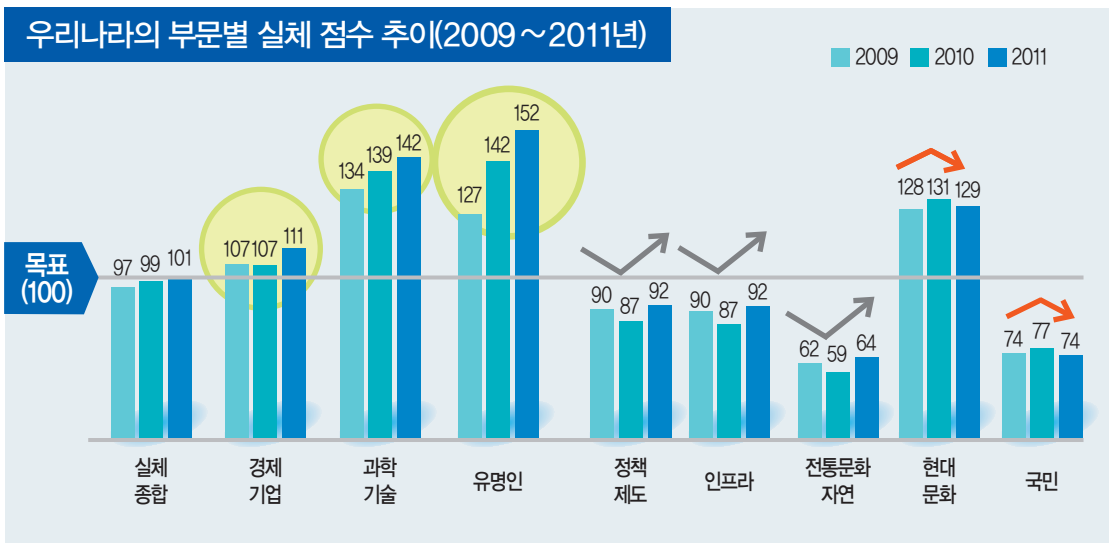
● 종합 순위는 실체 기준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이미지 기준으로 일본이 1위 차지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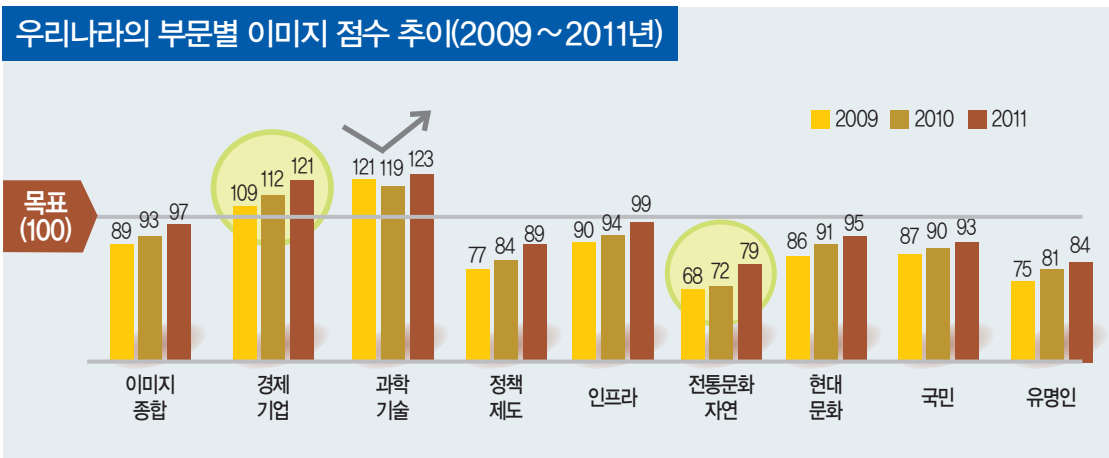
2011년 순위	실체			이미지		
	국가	2010	2009	국가	2010	2009
1위	미국	1	1	일본	3	2
2위	독일	2	2	독일	1	5
3위	프랑스	4	3	미국	4	6
4위	일본	5	5	캐나다	2	8
5위	영국	3	4	영국	5	4
	한국(15위)	18	19	한국(19위)	19	20

■ 2011년 평가 결과, 부문별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실체, 이미지 평가에서 모두 10위권 내

- 실체 평가에서 '과학·기술(2010, 2011년 4위)', '현대문화(2010, 2011년 9위)', '유명인(2010년 9위→2011년 8위)' 3개 부문이 10위권 내
 - 지난 3년간 '과학·기술', '유명인' 부문 점수의 성장세가 뚜렷함



- 이미지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2010년 10위→2011년 9위)'이 3년 연속 10위권에 속했으며, 나머지 부문도 상승
 - 거의 모든 부문의 점수가 지속적인 상승 추세



청와대 정책소식 과일호

제120호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제119호 이통신문고, 국민 고충 현장 해결사
 제118호 이제, 물 확보 여부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제117호 올해 5월부터 연대보증 제도가 개선됩니다
 제116호 공공기관 이전, 4대강, 지역인재 채용 등 지방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115호 이명박 정부 4년,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제114호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을 위한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제113호 중소기업을 위한 한미 FTA 100% 활용하기
 제112호 2012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22개 부처 및 4개 위원회 업무계획>
 제111호 3월 2일 농협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제110호 학교폭력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제109호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좋은 물건도 사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착한 소비입니다
 제108호 한미 FTA, 정확히 아시나요?
 제107호 <광역경제권정책 4년> 지역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106호 공기업들이 녹색도시·녹색건축으로 '지방시대'를 엮습니다
 제105호 내년에는 국민 세금을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쓰겠습니다(2012년 예산안)
 제104호 국민 권익보호 현장 속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제103호 4대강 새물결 준비되었습니다
 제102호 서민 체감경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01호 만5세 어린이들도 의무교육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100호 한국 경제 성적표(G20 국가와 비교)
 제99호 서민과 소외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최대한 돕겠습니다
 제98호 이명박 정부가 14년 동안 유예돼 온 복수노조 제도를 노사정 합의로 시행합니다
 제97호 소외되었던 이웃 2만3669명이 다시 웃었습니다!
 제96호 '전관예우' 이렇게 뿌리뽑겠습니다
 제95호 공공기관 지방이전 서두르겠습니다
 제94호 지역발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93호 대법원, 한강살리기 집행정지 신청 기각
 제92호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 발전과 가치 창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제91호 "농협 선진화"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제90호 기후 급변과 국정 대응방안
 제89호 서울정상회의의 성과 계승 및 발전을 위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 주요결과
 제88호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제87호 지금은 서민 복지에 전력을 다할 때입니다
 제86호 구제역,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85호 서민물가를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제84호 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83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2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1호 2011 정부부처 업무보고
 제80호 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전부 인정했습니다
 제79호 입학사정관제, 이렇게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78호 세계 최대 시장을 연 한, EU-FTA
 제77호 인허가 규제의 틀이 100여년 만에 새롭게 바뀝니다
 제76호 4대강 사업 예산의 오해와 진실
 제75호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폐휴대폰 재활용
 제74호 디지털방송 전환,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제73호 4대강의 진실
 제72호 1조 2천억원 규모의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제71호 내년 예산! 서민희망예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70호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이 이렇게 개선됩니다
 제69호 서민의 금융 애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68호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제67호 규제개혁 2년 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66호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열린 사회
 특집호 물, 강, 그리고 생명이야기
 제65호 서울 G20 정상회의의 중요성과 의의
 제64호 경제회복의 온기를 서민경제로 확산
 제63호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
 제62호 대한민국의 녹색희망, 새만금
 제61호 서민이 편해지는 생활감감정책
 제60호 서민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기반 확충
 제59호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제58호 우리고유의 맛과 멋- 한식세계화
 제57호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2.4% 컨텐츠산업
 제56호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보금자리주택
 제55호 죽어가는 4대강, 지금 꼭 살려야 합니다
 제54호 건강한 국민생활을 위한 환경성 질환 대책
 제53호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제약산업발전 정책
 제52호 대한민국 기술명장을 길러내는 마이스터고
 제51호 세계가 주목한 정상외교 2년

청와대 정책소식 _ 2009년 2월 23일 창간

편집인 _ 이동우 기획관리실장

역은이 _ 최원목 국정과제1 비서관

대통령실 _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청와대 홈페이지 (www.presiden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